

미국, 북극 특사 포함 36개 특사 지위 폐지 예정

- 탈라슨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향후 미국의 북극 거버넌스 동향 파악 필요

- '17년 8월 28일 미국 렉스 탈라슨 미국 국무장관의 뜻에 따라 기후변화 특사와 북극 특별대표를 포함한 36개 특사 직위를 폐지할 예정
- 탈라슨 국무장관 외에 미국 의회의 상당수 의원들도 국무부가 너무 많은 특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국(Bureau)의 업무와 상당한 부분에서 중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또한, 앵커리지 북극연구소(Institute of the North in Anchorage)의 닐스 안드레아센 사무국장 역시 북극 특별대표의 직무내용이 불명확하다며 본 직책 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임
- 향후 폐지될 기후변화 특사와 북극 특별대표의 업무는 국무부의 해양 및 국제환경 과학국(OES)으로 이관되어 수행될 예정

자료 1 : Alaska Public Media ('17.08.31.)

미국, 맥머도 남극기지 대규모 재건축 추진

- 맥머도 기지 재건축 작업으로 일부 과학 연구 및 인프라 지원 중단 예정
- 남극연구 지원 효율 증진을 더불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복지시설이 대폭 확충될 예정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극 기지 구축 기대

- 1955년 12월 설립돼 매년 약 1,000여 명의 하계 방문 연구원 및 250명의 전임 연구원들이 과학 활동과 미국 남극연구프로그램(USAP)의 보급 및 운영지원 허브로 이용해온 남극 내 가장 큰 규모의 상설 연구기지인 미국의 맥머도(McMurdo) 기지의 대규모 재건축 계획 발표
- 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OZ 건축회사(OZ Architecture)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존 기지의 형태를 6개의 건물로 구성하여 기지 내 물류 이동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 증진 및 친환경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는 30만 제곱 피트 (약 27,870㎡)의 캠퍼스 재건축 마스터 플랜을 발표
-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시작하여 2024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남극의 극악한 기후 조건과 고립된 위치로 인해 외부에서 미리 제작된 조립식 자재를 남극기지로 수송한 후 건설 공정에 들어갈 예정



그림 1. 미국 맥머도 기지 (자료: Peter Somers)

자료 2 : ArchDaily ('17.09.04.)

일본-인도, 중국 일대일로 맞선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추진

-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해 인도와 일본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는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AAGC)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양상

- '17년 9월 13일부터 14일 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인도 방문 기간 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서부 구자라트 주 간디나가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상안보, 방위산업 등 안보에서부터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약속
- 또한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사업 논의 후 일본은 최대 상업도시인 뭄바이와 서부 거점도시 아마다바드를 잇는 총연장 500km의 '총알 열차' 프로젝트 (2022년 완공 예정) 추진을 위해 170억 달러(약 18조9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 양국은 이날 일본의 대(對)인도 투자 증진과 인도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등 15개 개별 협약도 체결
- 앞서 아베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6년에 일본의 자본과 기술, 인도의 인력과 현지 경험을 결합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국에서 도로 등 인프라 투자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자료 3 : Korea Daily ('17.09.14.)